

'90全國建築士大會의 成功的 開催와 200萬戶 住宅供給政策에 대한 再考

金基斗
대영건축사사무소
전국건축사대회 기획의원
by Kim, Kee-Doo



'90全國建築士大會가 막을 내린지 벌써 한달이 지났다. 建築士協會가 탄생된 지 24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건만 全國大會는 이제 두번 치루어졌다.

大會場에는 建設部관계자와 民主自由黨 最高위원을 대신한 朴俊炳사무총장을 비롯해 國會建設委員長을 대신한 李麟求의원이 參度하였고, 平和民主黨 金大中총재, 朴胤成 大韓建築學會長, 尹道根 韓國建築家協會長, 日本 建築士會 聯合會 熊谷兼雄 부회장 등 各界 代表들과 國會議員 등 많은 관계인사들이 參석하여 本 大會를 祝賀해 주었다.

특별연사로 參석한 金東吉 교수는 “史學家가 보는 建築”이라는 題目의 特別강연에서 建築과 建築士의 關係를 諧謔的으로 풀이하여 건축사의 使命感을 鼓吹시켰으며, 뿌리를 가진 建築으로서 후세를 위한 文化的 遺品을 創造할 것을 督勵하였다. “建築人의 밤” 축하공연은 평소 作品活動에 몰두하여 心身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잠시나마 破顔大笑를 안겨준 즐거운 한 때였다.

한편, 建設部長官은 致辭를 통해 “協會가 創立된 지 24년만에 3천3백여 회원을 포용하게 되었고 전국 규모의 성대한 行事를 개최할 수 있는 力量을 가진 建築界의 代表的 職能團體”라고 致賀하는 한편 “建築物은 人間生活을 담는 그릇인 동시에 우리시대의 거울로서 한 국가의 文化水準을 재는 尺度로 建築士의 社會的, 歷史的, 文化的 役割의

막중함”을 지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建築士는 國民생활의 質的 向上과 民族文化 帳達에 先導的 役割을 하게 되는 것임을 한시도 잊지말라”고 당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宋基德 회장은 開會辭에서 “全國建築士大會는 건축사가 협회를 中心으로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된 힘을 지키고 共同體的 一體感 속에 ‘대화합의場’으로 이어져 協會의 발전을 도모하는 觸媒劑로서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와같이 커다란 장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이면에서 宋基德 회장과 朴成圭 大會執委員長을 비롯한 委員들과 協會 任職員들의 渾然一體된 노력이 있었기에 이러한 結實을 이룰 수 있었으며 우리 建築士들은 國家建設의 先行者이며 國家建設의 役軍임을 다시한번 다짐하는 자리가 된 것이다.

'90全國建築士大會 公開討論會의 主題인 “200萬戶 住宅供給정책을 위한 建築界의 提案 ”은 시국과 밀접한 課題로 政府나 國民 모두의 관심사였다. 發表者나 討論者 모두가 평소 생각하고 있던 문제점들을 披瀝하였고, 거침없는 討論과 새로운 方向의 開陳이 있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다소 미흡했던 점 몇가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정부는 200만호 주택건설의 목표달성에 온갖 힘을 쏟고 施策方向과 建設理念을 汎國民的으로 具現하고 住宅供給 圓滑을 위한 支援강화에 行政方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建設部 集計에 의하면 1989년말 현재 5백4만7천 가구가 집을 갖지 못한 채 전·월세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절반 정도가 셋방살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 250만 가구는 단칸방에서 살고 있으며 그중 생활보호대상 가구도 1백만세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200만호 주택건설의 목적은 住宅供給의 圓滑, 서민 및 근로자들을 위한 政策 配慮와 부동산거래의 安定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200만호라는 숫자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都市人口의 集中, 宅地문제,

資材需給, 人力, 高勞賃문제, 그리고 사업수행에 따른 절차의 복잡성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散積해 있다.

세상살이의 여러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집없는 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란 옛 말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내 집에 대해 간한 愛着心을 갖고 있으며 알뜰하게 저축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平生의 꿈이기도 하다.

그러나 요즘 세상을 떠들석하게 하고 있는 전·월세가의 暴騰을 비롯한 不動産價格의 上昇은 이같은 庶民들의 소박한 꿈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집없는 아픔을 더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가의 暴騰 등 不動産 問題는 物價 불안정이라는 차원을 떠나 國民들의 一次의인 生活의 安定을 破壞하며 경제 안정을 위협하고 나아가 社會不安을 가져오는 要因이 되기도 한다. 政府에서는 土地公概念의 도입, 新都市 開發 및 不動産投機에 대한 重課稅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서울의 인구는 1천만명을 웃돌고 있으며 서울을 포함한 首都圈의 인구는 1천7백만명으로 集計되고 있다. 일개 都市의 人口가 1천만명이 넘으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複合的으로 發生하고 있으며 특히 首都圈의 交通問題는 그 限界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人口集中의 原因으로는, 첫째, 首都圈에 직장이 집중되어 있으며 둘째, 모든 생활용품이 서울을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고

셋째, 중학교 이상의 學校施設이 지방에 비해서 월등히 좋고

네째, 일용노동이 수월하고 서울 생활환경이 지방보다 낫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人口集中에 대한 效率的인 對策으로는 地方發展을 위한 政策이 先行되어야 하겠다.

분당, 일산, 산본, 평촌 등 新都市들은 自生都市로 볼 수 없다. 도시의 형성은 첫째 대중교통인 철도가 가설되어야 하는데, 분당의 경우 심한 交通難이 예상되고 더구나 學區가 定立되지 않아 중·고등학생을 둔 中流이상의 家庭에서는 분당으로의 이사를 기피할 것이므로 假需要者나 老後生活를 목적으로 하는 세대들로 도시가 채워진다고 생각되어져 분당이 自生都市로서의 規模와 成長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 供給을 늘리는 것이 最善의 方法이지만 住宅보급을 확대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이에 병행한 宅地供給의 問題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너무 서두르다보면 資材의 品貴, 人力難 등이 겹쳐 오히려 부동산 시세를 부채질하는 격이 된다.

또한 200만호 주택건설은 아파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田園住宅도 아울러 생각해 나가야 하겠다. 21세기에는 國民所得이 1만5천불에 이른다고 한다. 경제가 성장하고 生活水準이 올라가면, 庭園이 있고 展望이 좋고, 空氣가 맑은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欲求가 강하게 擡頭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것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國土擴張을 위해 인접 인도네시아에서 흙을 사와 기차로 실어 바다를 메우고 공장을 지었다는 현지 안내원의 설명이 기억난다. 야산과 구릉지를 자연 그대로 田園住宅을 建設하고 야산을 바다로 옮겨 공장 부지로 대체하는 등의 정책은 國土開發 次元에서 實效性이 있다고 전망된다.

특히 지난날을 돌이켜 볼 때 철거민의 아파트 입주권은 殘金支拂 能力不足으로 기백만원의 웃돈으로 입주를 포기하는 事例가 허다했다. 서민을 위한 주택건설이라면 資金支援도 아울러 考慮 되어야 하겠다.

200만호 주택건설의 목적은

住宅供給의 圓滑, 서민 및 근로자들을 위한 政策 配慮와 부동산거래의 安定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200만호라는 숫자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都市人口의 集中, 宅地문제, 資材需給, 人力, 高勞賃문제 그리고 사업수행에 따른 절차의 복잡성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散積해 있다.

이미 정부에서도 발표하였고 계속 건설되고 있는 영구 임대주택의 범위를 넓혀 우리 모두가 주택에 대한 所有愛着心과 주택을 財産增殖의 目的에서 멀리하는 國民啓導方法도 고려되어야 한다.

끝으로 200만호 주택건설은 新規住宅建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不良住宅 및 密集地域의 住宅環境 改善과 서민을 위한 住宅供給에 있다면 전국적으로 劃一化되어 建設法, 都市計画法 등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規定을 改正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法 和政策을 施行할 때 住宅8이 財産増대의 대상이 아닌 모든 사람의 衣, 食, 住가 함께하는 참다운 福祉國家 建設의 미래가 약속될 것이다.